

누가 내 머리에  
똥 싸어?



베르너 홀츠바르트 글. 볼프 에를브루흐 그림

작은 두더지가 하루는  
해가 떴나 안 떴나 보려고 땅 위로  
고개를 쭉 내밀었어요.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뭉글뭉글하고 길고 갈색을 띤  
어떤 것이 갑자기 두더지의 머리에  
첼퍼덕 하고 떨어졌어요.  
그것은 소시지 같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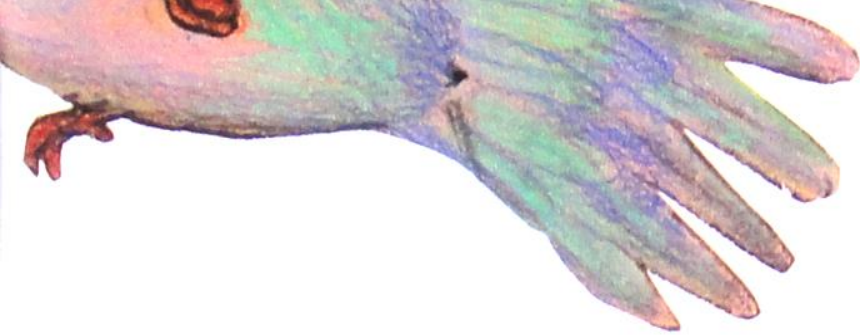
“에그, 이게 뭐야!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두더지가 소리쳤어요.

( 그러나 눈이 나쁜 두더지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



“네가 내 머리에 똥 샀지?”  
두더지는 막 그 곳을 날아가는  
비둘기에게 물었어요.





“나? 아니야. 내가 왜?”

비둘기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 그러자 하얀 물똥이 작은 두더지의  
발 앞에 칠썹 떨어졌어요. 두더지의  
오른쪽 다리가 하얗게 얼룩졌어요. )



“네가 내 머리에 똥 샀지?”  
두더지는 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에게 물었어요.







“나? 아니야. 내가 왜?”

커다란 말이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쿠당탕 소리를 내며 다섯  
개의 크고 굵은 말똥이 작은 두더지  
앞으로 떨어졌어요. 마치 까만  
사과처럼요. 정말 굉장했어요.

“네가 내 머리에 똥 샀지?”  
두더지는 토끼에게 물었어요.  
“나? 아니야. 내가 왜?  
토끼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타타타 하고 열다섯 개의  
토끼 똥이 마치 까만 콩처럼  
두더지 주위로 쏟아졌어요.  
두더지는 “아이쿠!”하면서  
젖싸게 피했어요.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두더지는 방금 꿈을 꾸고  
난 듯한 염소에게 물었어요.





“나? 아니야. 내가 왜?”

염소가 대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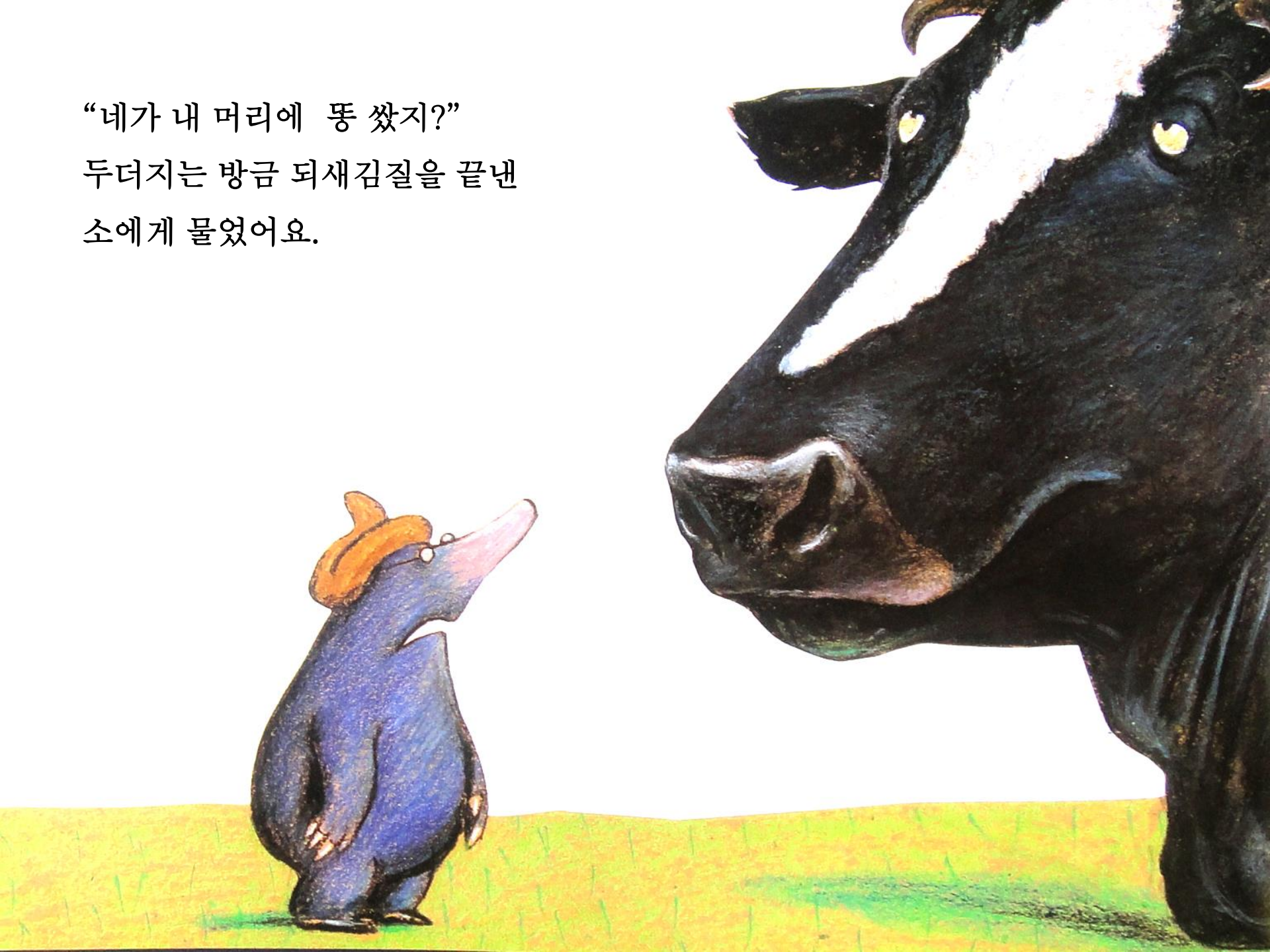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오도당동당 하고  
까만 새알 초콜릿 같은 똥이  
궁중제비를 하며 잔디 위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두더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네가 내 머리에 똥 찼지?”

두더지는 방금 되새김질을 끝낸  
소에게 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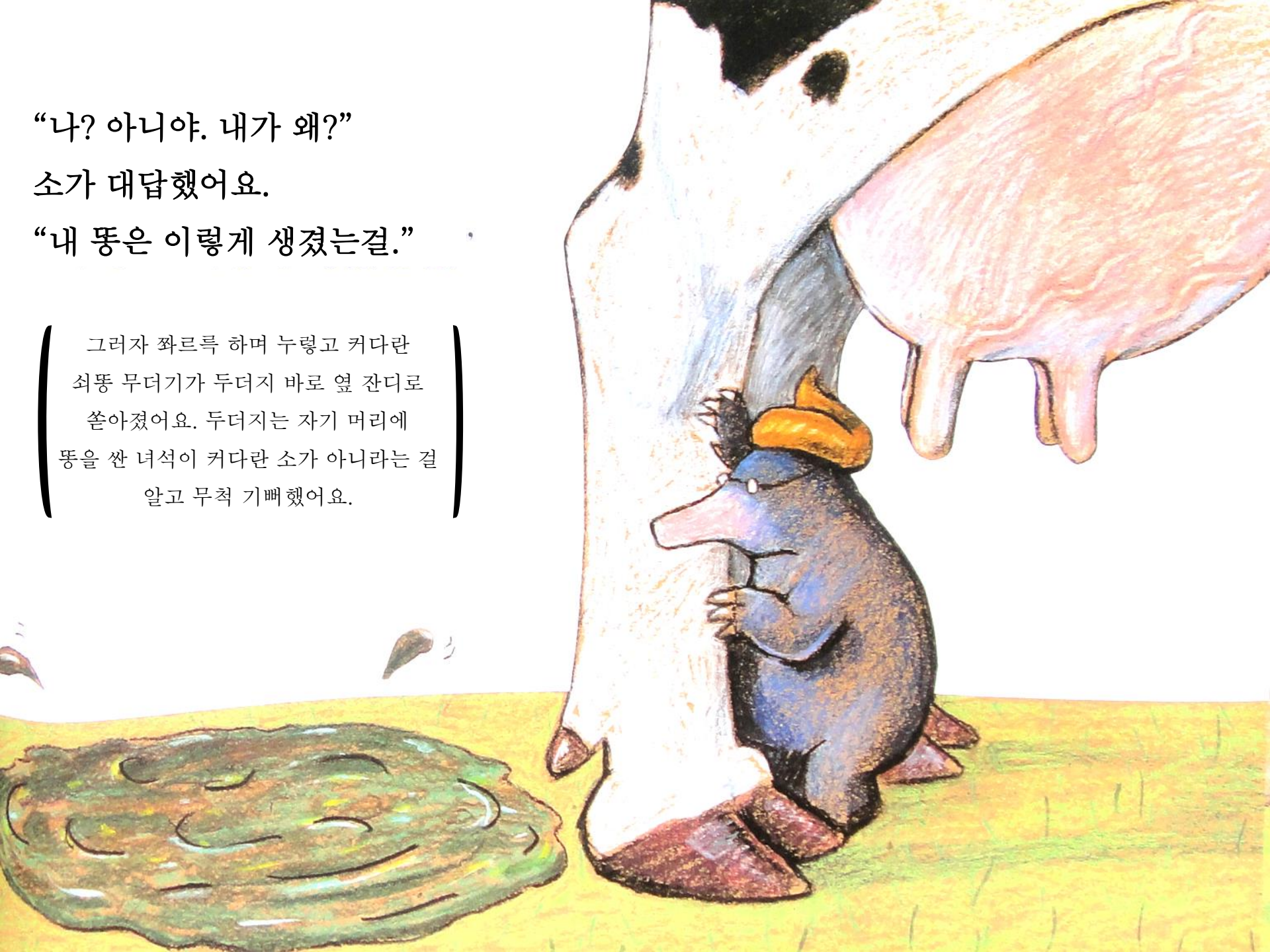


“나? 아니야. 내가 왜?”

소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짹트릭 하며 누렁고 커다란  
쇠똥 무더기가 두더지 바로 옆 잔디로  
쏟아졌어요. 두더지는 자기 머리에  
똥을 싼 녀석이 커다란 소가 아니라는 걸  
알고 무척 기뻐했어요.





“네가 내 머리에 똥 샀지?”  
두더지는 돼지에게 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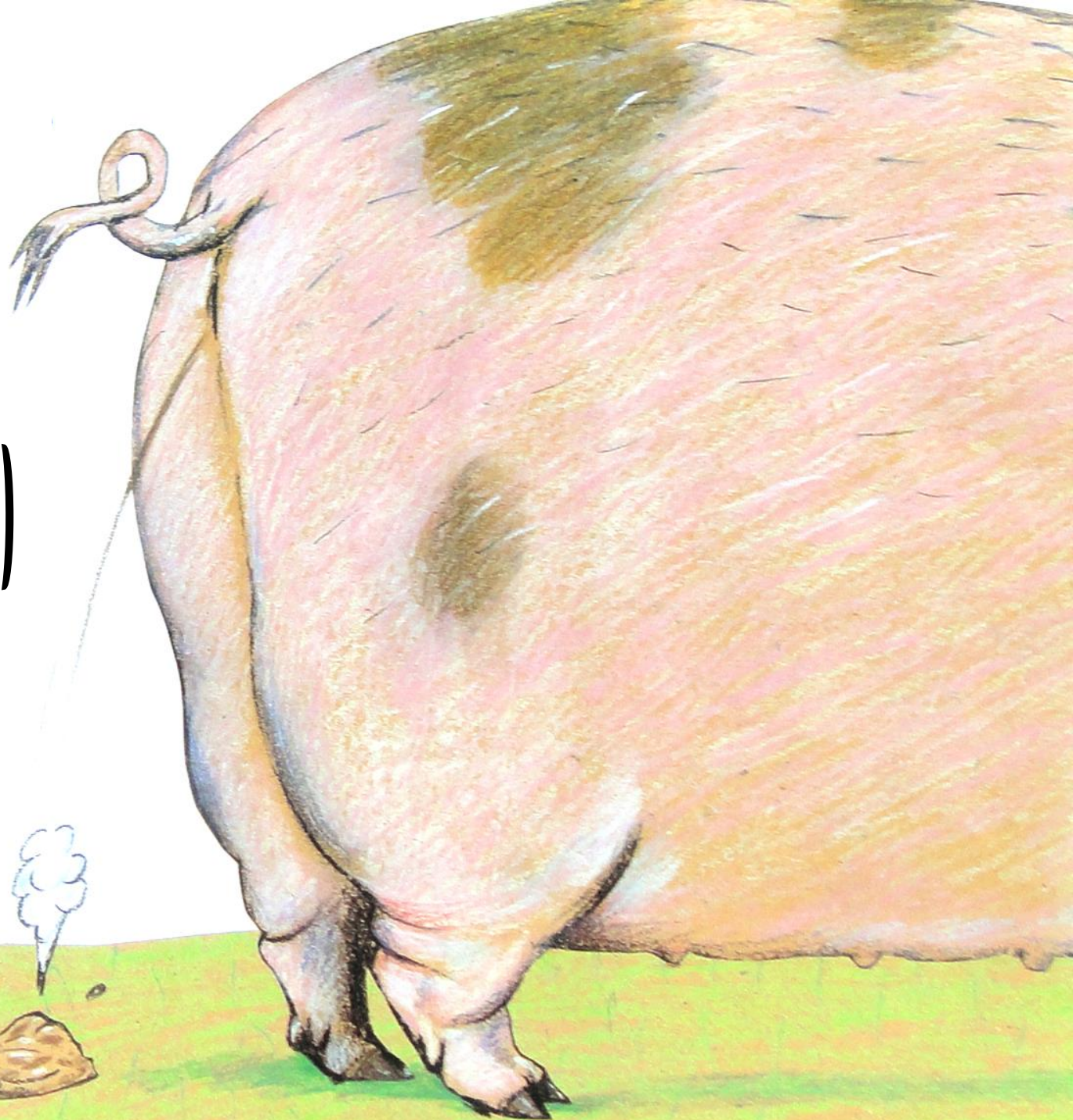


“나? 아니야. 내가 왜?”

돼지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 걸.”

그러자 물은 똥 무덤이  
뿌지직 하고 풀밭에 떨어졌어요.  
두더지는 코를 싸쥐었어요.





“너희들이 내 머리에 똥 샀…”

두더지는 물어 보려다 말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통통하게 살찐 파리 두 마리가 뭔가를 훑아먹고 있었어요.

‘드디어 나를 도와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두더지는 생각했어요.

“얘들아,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샀을까?”





두더지가 얼른 물어 보았어요.

“재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

파리 두 마리가 웅웅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건 바로 **개**가  
한 짓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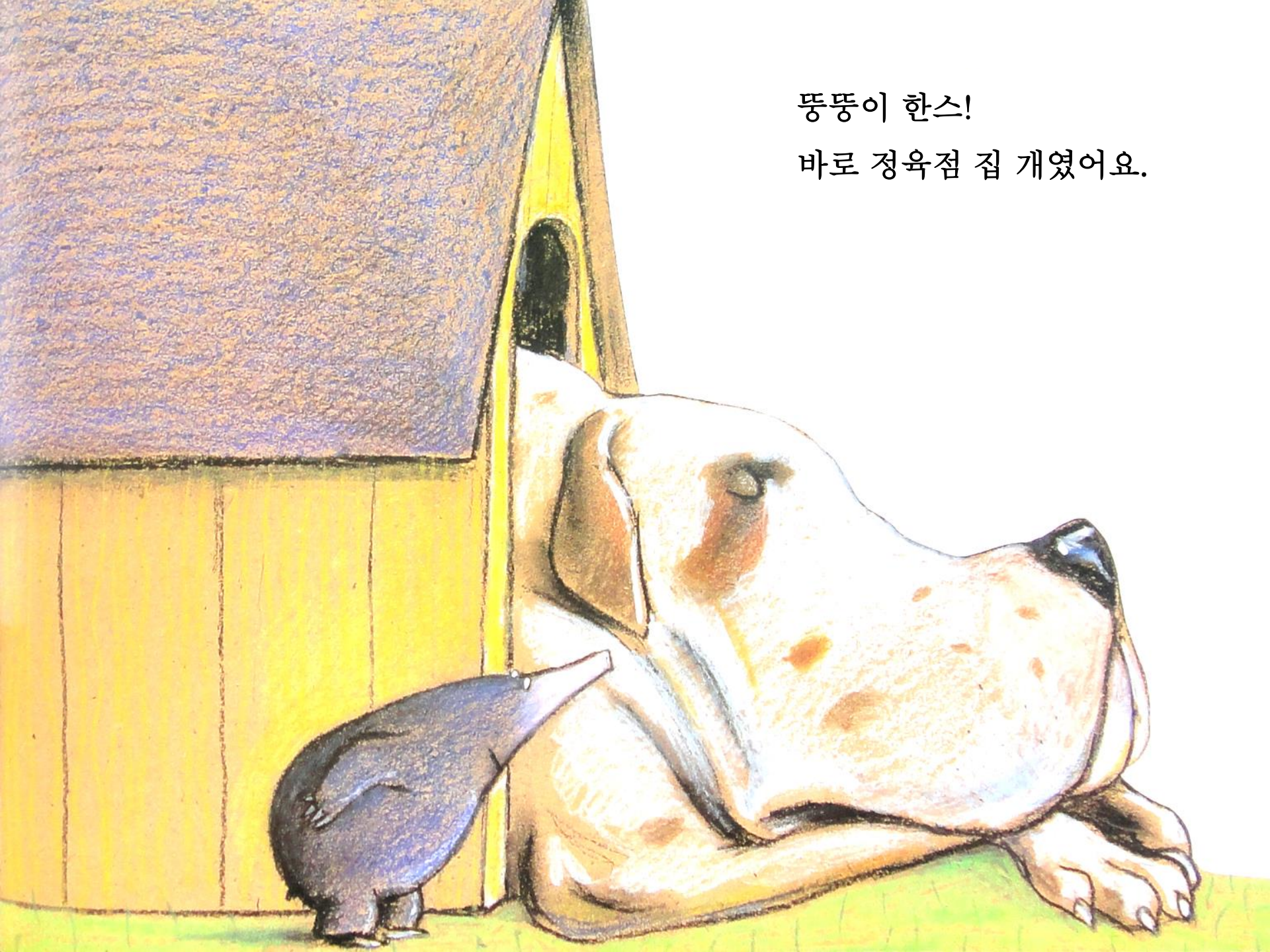


드디어 작은 두더지는  
누가 자기 머리에 똥을 쌌는지  
알게 되었어요.



똥똥이 한스!

바로 정육점 집 개였어요.





두더지는 똥똥이 한스의 집 위로  
재빨리 기어 올라갔어요.

잠시 후,  
작고 까만 콧감 씨같은 것이  
똥똥이 한스의 널따란 이마 위로  
슌 하고 떨어졌어요.





작은 두더지는 그제야 기분 좋게  
웃으며 땅 속으로 사라졌대요.

